

모두들 불황이라고 한다. 지난해 약 6만여종에 대략 2억 3천만권의 책이 출간(통계청 집계)된 스페인 출판계 역시 최근 몇 년과 다를 바 없이 심각한 불황이다. 스페인 출판 시장은 '레티로 공원'에서 펼쳐지는 '마드리드 북페어' (Feria de Libro de Madrid, 5월 25일 ~ 6월 10일)로 시작된다. 그러나 관계자의 지적처럼 일찍 찾아온 무더위 탓인지 관람객 수는 지난해 약 3백만명에서 250만명으로 격감했고, 대략 4백개 서점 부스의 판매액은 75억원 정도에 그쳤으며, 그 여파는 여름 시장을 겨냥하던 서점가의 불황으로 여김없이 직결됐다. 이는 출판 평론가 페레스 미겔이 <스페인 사람들은 무엇을 읽는가>라는 글에서 지난해에 자국민 42%가 책 한권 읽지 않았고, 30%가 책을 한권도 구입하지 않은 것을 개탄하며 올해 독서 시장을 어둡게 봤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 민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불황 헤쳐간다

스페인의 출판 불황 극복 해법

정창 | 번역가



스페인의 출판시장은 요즘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마드리드 북페어의 관람객 수가 급감하고 부스 판매액도 저조했다. 사진은 매년 5, 6월에 열리는 마드리드 북페어의 공식 포스터.

## 출판불황 넘기 위해 경품도 내걸어

올해 상반기에 스페인을 대표하는 최대 서점 '카사 델 리브로' (www.casadellibro.com) 같은 곳에서 이른바 가장 '잘 팔리는'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등 세계적인 흐름과 별 차이가 없는 번역물 시리즈였다. 일례로 소설문학 시장은 페레스 레베르테를 선두로 아엔데와 세폴베다, 혹은 기존의 중견 작가들이 겨우 그 체면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침체 현상을 타개하고자 해묵은 <세계 고전 명작 시리즈>(에스파사 칼페 출판사) 50종을 72% 할인 가격에 경품까지 덤으로 내놓거나, 유력 일간지 《엘 문도》의 북사이트(www.elmundolibro.com)가 '고급 독자'를 대상으로 기획·선집한 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 1백종을 파격적인 가격(권당 275 페세타. 필자는 약 2천원 정도의 가격에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다)으로 독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 스페인은 어떤 식으로 불황을 헤쳐나가는가. 흔히 스페인 출판 시장의 소비자는

전 세계 4억명을 헤아리는 인구, 즉 자국을 비롯한 중남미 나라들과 미국의 라틴계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독서 인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맞는 말이다. 기존의 정가제를 고수하면서도 소비자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 특별 할인전 등을 내세우는 등의 마케팅을 병행하는 그들은 e-북의 출현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출판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남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전통적인 자구 노력과 그들의 버팀목이 돼주는 관계 당국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문화교육부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향후 4년에 걸쳐 약 1천 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야심 찬 '독서 진흥책'을 발표했다. 그 대상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이를 위해 도서관을 개선하고 독서 장려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출판계의 불만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또한 문화교육부는 해마

다 일정한 예산을 책정해 세계 각국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자국 창작물의 번역 경비(우리 출판사들도 그 혜택을 받았다)를 지원하는 등 활자문화 수출사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 출판시장의 세계화에 출판계 힘 모아

한편 출판업계는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세비야, 히혼, 빌바오, 우엘바, 살라만카 등 거의 모든 도시에서 크고 작은 북페어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동시에 그들은 동유럽권 국가들, 즉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의 보고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등의 국제 북페어에 실질적이고 공동체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놓치지 않으며 출판 시장의 세계화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5백억의 출판 지원금을 생색내듯 '풀었던' 관계 당국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이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고 하는데, 1천만 서울 인구에 26만여명이라는 관람객 숫자를 마드리드 도서전과 비교할 때 출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혹시 우리 출판 문화 종사자들은 독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펼쳐주지 않는 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